



#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써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 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1 쉬운 성경)



가족 사진 - 케이프타운 마지막날  
12 사도 봉우리가 보이는 캠프 베이 Camps bay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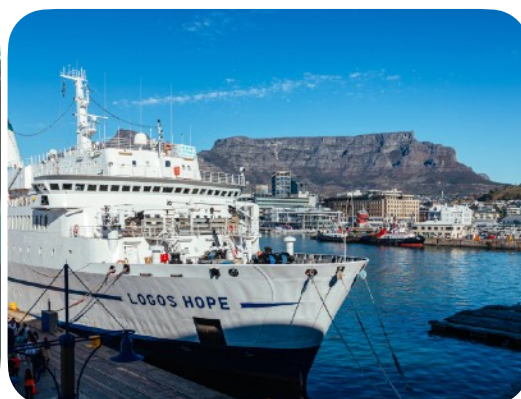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장마로 습하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계실 동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6월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6월 3일 케이프 타운 **Cape Town** 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항구를 통해 큰 힘을  
얻으며 즐겁게 사역하였습니다. 지난 더반 **Durban**에서 수리한 곳 중 미미한 부분들이 있어 계속  
해서 작업들을 하고 감사원에게 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7월에 나미비아  
**Namibia** 에서 다시 감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  
만 한편으로는 간간한 감사원을 통해 저희 배를 안전하게 더 정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신 선교사는 계속해서 로고스 호프 선교사들의 여러 인사 문의들 - **부서 운영, 재정 후원, 사역 기간 연  
장, 사역 조기 단축, 캐빈 숙소, 부서 이동, 신앙 상담** 등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케이프  
타운에선 여러 나라의 인사 담당자들이 배를 방문했는데요. 영국, 중동, 아프리카 권역 그리고 남  
아공 인사담당인 분들이 배에 방문하여 각 지역의 선내 인사들에 대한 회의가 연이어 있었습니  
다. 또한 케이프 타운에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의 방문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  
의 교제와 한인교회 분들의 방문은 저희에게 참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분들의 사랑으  
로 배추와 라면도, 맛있는 케이크 그리고 떡까지! 귀한 교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로고스호프 서점 개장식에 오신  
케이프 타운 Eddie Andrews 부 시장님



로고스호프와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님이 흑인마을에  
개척하신 청운교회 말씀으로 섬기며



정 선교사님께 소개 받은  
아니타와 친구분과 함께 식사하며



케이프 타운 자원봉사자 송별회 MC 중에



정 선교사님 소개로 교제하게 된  
캐롤과 브라인언 부부에게 투어를 해주며

더반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정금옥 선교사님의 소개로 도 선교사는 현지 가족과 더반에서 투어를 해주었던 분의 딸과 그 친구 또 그 친구들을 투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여성들끼리 밖에 나가 같이 식사도 하고 처음 만났지만 주님안에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 컨퍼런스와 자원봉사자 송별회 때 사회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짐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두바이에서 왔던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장로교회에서 다시 비전팀이 왔습니다. 11명의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 배에 함께 사역하며 전체 식사도 만들어주시고, 저희 한국인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언어도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 같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통해 마음이 가고 정을 나눌 수 있다는게 참 신기했습니다.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을 가져 너무 감사했습니다.

케이프 타운에서의 마지막 주에 주안이와 이안이가 수족구에 걸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저와 열흘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히 증상이 심하지 않아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활동하고, 항구가 걸어다니기 공간이 넓고 안전해 밖에도 자주 나갈 수 있어 감사히 시간을 힘들지 않게 재밌게 보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프 타운에 마지막 쉬는 날인 월요일에 배에서 마련한 케이프 타운 투어가 있었는데 함께 가지 못해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 선교사가 10여년전 함께 로고스호프에서 함께  
사역했던 오키와 레니 선교사 부부를 다시 만나며



선상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트릭을 통해 전하는 메세지



케이프 타운 지역 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선상 컨퍼런스





로고스호프 선상 학교에서  
방문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수족구에 걸려 강제 방학(?)을 당해  
기분이 좋은 두 친구



한국인 제빵사 창윤 형제와 함께  
과배기를 야식으로 만들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한 선교사님을 통해 배추를 전달해 주신 한 여 집사님께서 **이승은 집사님** 월요일에 오셔서 저희에게 케이프 타운을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해 주셔서 그분의 따뜻한 배려로 멋진 풍경도 보고 아이들이 즐거워 하는 작은 동물원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게 저희 모두를 보살피고 계심을 또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을 감사히 보내고 저희는 6월 25일 나미비아로 4일간의 항해를 시작하여 28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항해는 첫날 조금 거칠고 이틀째부터는 잔잔하여 오랜만에 배 앞쪽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별도 보고, 항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나미비아에서의 첫 주는 안식주간으로 그동안 모두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쉬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남아공에서 오신 부부 강사님 **Theo & Esme Bowers** 과 찬양 사역자분을 초청하여 오전에는 예배와 설교를 듣고 오후에는 쉬고 일도 하루 이틀정도만 하면서 모두 쉼의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이제 7월 5일 서점개장식을 통해 시작될 나미비아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동역자 분들에게도 나미비아에서의 시간들을 곧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저희도 항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1. 케이프 타운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맺을 수 있도록
2.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3. 나미비아에서의 사역을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4. 저희는 현재 다음 로고스호프 사역 이후에 저희 선교지가 될 나라 알바니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 마무리와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나미비아, 알비스만**

6월 28일 ~ 7월 22일

**앙골라, 루안다**

7월 26일 ~ 8월 2일

**가나, 테마**

8월 7일 ~ 9월 4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톡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